

정보통신연구진흥원

www.iita.re.kr



제5대 이성욱 원장 취임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제 5대 원장으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을 지낸 이성욱 원장이 선임되어 7월 25일 대전 본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성욱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평가 및 사업관리 기능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분담하며 "앞으로는 연구기획 분야에서 우리 원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는 "진흥원은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면서 "이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안 보다는 도약을 위해 고급 분야에 투자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욱 선임원장은 충남 천안고 출신이며 행시 2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정통부 체신금융국장, 전파방송관리국장, 정보화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이 원장은 정통부의 전신인 체신부 시절부터 우리나라 IT 산업의 격동기인 90년대와 2000년대 정보통신 정책을 진두 지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최초 흑백/컬러 "고감도 나노 이미지센서 칩" 양산시제품 개발 성공

플래닛 82(주)는 지난 7월 기존 이미지 센서의 수백 배 이상 감도를 가지고 어두운 장소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흑백/컬러 고감도 이미지 센서 칩의 양산시제품을 세계최초 개발하였다. 이 성과는 우리나라가 세계 이미지센서 시장의 주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분야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연간 약 2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 이미지센서가 국산 응용기기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경에는 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신장되어 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르게 될 경우, 약 370억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김대중 연구원(042-710-1185)

IT분야 기술수요 작년보다 34% 증가

IITA에서 실시한 IT기술수요조사 결과, 접수건수가 지난해보다 34% 가량 증가하였다. IT기술수요조사는 내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및 정부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IT기술수요 접수는 307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34.2%가 증가한 412건이 최종접수됐다. 기관별로는 연구소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 산업체 128건, 대학 52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술분야별로는 IT SoC 및 부품분야가 지난해 49건에서 72건, IT융합분야가 10건에서 4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SW 솔루션분야는 19건에서 55건, 디지털TV/방송분야는 22건에서 40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R&D표준관리시스템의 도입',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획추진', '우수한 수요제안자에 대한 각종 보상 강화' 등으로 인해 접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함정우 연구원 (042-710-1041), 이상호 연구원(042-710-1183)

IITA, 정통부 산하기관 중 혁신수준 1위 (5단계)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혁신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경영혁신대상 2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혁신수준을 평가한 결과 산하기관 평균 혁신수준은 지난해 2.9단계에서 3.9단계로 올랐고 성과창출단계인 4단계 이상 기관수도 전년도에 1개 기관에서 이번에는 5개 기관으로 증가하는 등 혁신활동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산하단체중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혁신의 체질화가 시작된 단계인 5단계로 가장 높고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4단계,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등은 혁신활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3단계였다.

IT 기반 융합기술 워크샵 개최

IITA IT SoC 및 부품전문위원실은 7월 20~21일 양일간에 걸쳐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IT 기반 융합기술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은 융합분야 기술 및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융합분야 기술개발 과제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정부의 융합기술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정통부, IITA 및 과제 수행기관 관련 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초청강연으로 정통부 김재준 사무관은 정통부 IT융합기술 정책을, 카톨릭의대 윤건호 교수는 융합기술 전반에 대한 전망 및 산업동향을, 보건복지부 김소윤 서기관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률 제정방안에 대해 강연하였다.

■ 문의 : 이민경 연구원(042-710-1182), 임문혁 연구원(042-710-1184)

IITA, 우수 IT중소·벤처기업에 18억원 지원

IITA는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6년도 하반기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IT우수기술지원, IT산업경쟁력강화)에 모두 18억원을 지원하였다.

IT우수기술지원사업은 최대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총 개발비의 75% 이상을 출연지원하며,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올 하반기 13억6천만원이 지원된다.

■ 문의 :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42-710-1252~6)

IT-SoC협회

SoC 포럼/SoC PG 합동 워크샵 개최

'SoC 포럼/SoC PG 합동 워크샵' 행사가 2006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IT-SoC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동 주관으로 제주도 동양썬라이즈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IP/SoC 및 테스트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국내 SoC 관련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IP/SoC 표준화 현황과 국내 IP 재사용 현황 그리고 IP/SoC 검증지원 현황 및 활성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TRI 여순일 책임연구원은 "TTA SoC PG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KETI 이윤식 본부장은

은 "디지털 3강 구현을 위한 KETI의 산업기반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ETRI SoC산업진흥센터의 차진중 팀장은 "국내 IP 재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외 에도 지난 2년간 SoC 포럼과 TTA SoC PG(Project Group)의 IP/SoC 표준화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고, ETRI와 KETI의 IP/SoC 산업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다.

IP/SoC 관련 산업체의 요구사항 및 학계와 연구소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약속하는 장이 되었다.

"SoC임가공 및 부품 전문협의회 제2차 간담회" 개최

IT-SoC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SoC임가공 및 부품 전문협의회 제2차 간담회가 지난 6월 28일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개설된 2006년도 상반기 테스트인력양성교육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되었다. 자사 직원의 교육을 위탁했던 테스트·패키지업체의 전문협의회 담당자들은 테스트인력양성교육의 강사진과 교육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업계의 원활한 테스트인력수급을 위해 교육대상의 확대를 SoC산업진흥센터 관계자에게 요청하였다. 테스트인력양성교육은 2005년도 SoC임가공 및 부품 전문협의회 참여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인 SoC테스트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oC산업진흥센터에서 개설하였으며 업계의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순서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타 분야에 비해 정부지원과제 정보가 부족한 테스트·패키지 업체를 위해 정부지원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패키지업체의 정부 지원과제 참여현황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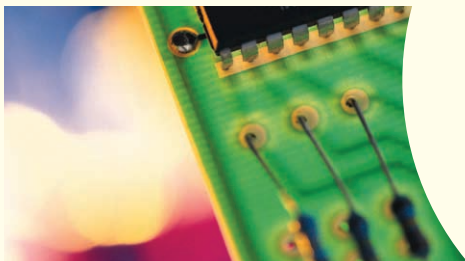
Q2 IT SoC산업동향 리포트 발간

IT-SoC협회는 지난 6월 1사분기 IT SoC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한데 이어 8월 31일 2사분기 IT SoC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IT-SoC협회는 2사분기 IT SoC산업동향 리포트 작성을 위하여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포함한 총 32개 Fabless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사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조사하였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된 리포트는 회원사, 관련 기관 및 연구소 그리고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또한 2사분기 IT SoC산업동향 리포트는 협회홈페이지(www.itso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IT SoC Times" 웹진 발행



IT-SoC협회는 지난 8월 28일 IT SoC Times를 발행하였다. 그 동안 IT SoC Magazine을 통하여 우리 업계관련 동향과 시장·기술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뤄왔고 이번 "IT SoC Times"를 통해 우리 업계동향과 관련 행사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되어 온·오프라인 양방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T SoC Times는 매주 1회 웹진으로 발행되며,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된다. 웹진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itsoc.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담당자(이지연 jylee@itsoc.or.kr)에게 신청하면 된다. 🔌



하계 SoC 설계특론과정 CEO특강 '공돌이가 벤처회사 사장이 되고 나서' 벤처기업 (주)TNI 김 달 수 대표이사

ETRI SoC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SoC설계 고급인력양성 석·박사 과정의 하계 강좌중에 티엘아이 김 달수 대표이사의 특강이 8월 21일 오전 60분간에 걸쳐 수강생 50여명을 대상으로 IT-SoC 아카데미에서 개최 되었다.

이는 전문기술을 공부하는 공학도에게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대한 경험을 전문경영인을 통하여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경영강좌이다.

이날 김 대표는 지난 9년간 (주)TNI가 성장하여 2006년 7월 코스닥에 입성하기 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 후 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6가지의 성공요소에 대해 각 기업의 사례를 들어 강연하였다.

첫째로 나의 진로 선택은 정답인가, 오답인가? 둘째로 유행을 쫓으며



살 것인가,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셋째로 나는 진정한 전문가인가? 넷째로 돈 버는 곳과 돈 쓰는 곳의 조화로운 방향은? 다섯째로 차별인가, 차이인가? 여섯째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에 대한 고민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었다.

2006년 마지막 기회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 3차 신청 접수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차세대 이동통신, DMB, DTV 등 고기능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IT SoC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SoC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06년 마지막 3차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15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기별(3월, 6월, 9월) 1회 신청 접수 및 심의를 실시하여 1차(3월) 및 2차 (6월) SoC 시제품 개발지원에서 총 27종을 선정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맞춤형 IP지원(IP 도입 및 사용

비용 지원도 1차(3월) 및 2차(6월) SoC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IP 도입 4종, 사용 25종을 지원한 바 있다.

'06년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에 선정된 중소 벤처기업은 △원스톱 파운드리 서비스 지원, △IP 도입 및 사용 비용, △후반부설계(Back-end Design) 비용, △제작(Mask & Fab) 비용, △패키지(Package) 비용 등 SoC 개발비용의 50% 이내를 선택적으로 지원받아 SoC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하계 설계특론

IT-SoC아카데미에서는 2006년 6월 12일부터 8월 25일 까지 하계 SoC 설계특론 총 36과목이 개설되어 시행 되었다. 500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설계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학계,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90여명의 강사가 동원되어 실무적인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계 설계특론은 SoC 플랫폼(DMB/모바일폰) 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6과목), SoC 제품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4과목), SoC 요소기술 설계실습 코스웨어(13과목), SoC 전공인증 교과



과정 코스웨어(4과목)의 체계로 구성되어 교육하였고, 추가적으로 IT-SoC지역캠퍼스를 활용하여 9개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다. 본 설계특론 프로그램은 보다 개선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2006년 12월부터 동계설계특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IT-SoC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학생들은 재학 중 총 4주, 박사과정 학생들은 총 8주의 설계특론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계 설계특론이 끝나고 2006년 9월 중에는 가을학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IT-SoC전공인증과정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체 맞춤형 설계교육 개설

IT SoC 인력양성 후원기업인 삼성전기(주)의 직원을 위한 맞춤형 설계교육을 공동기획하여 '06. 5. 29. ~ 7. 21.의 8주간에 걸쳐 9개 설계실습과정, 5개의 설계특과정을 개설하여 17명이 수강, 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후원기업인 삼성전기(주)의 직원 재교육 계획에 의한 것으로 자체 사내교육과 우리원 IT SoC아카데미에 교육을 의뢰하여 추진하였고, IT SoC 아카데미는 BBIC, RFIC, S/W 3개 분야에서 삼성전기(주)의 전문인력, IT SoC 전공인증과정 교수와 함께 교육수요, 내용 선정등을 협의하여 개설과정을 기획, 확정하였다.

이번에 개설된 과정은 산업체 재직자 및 IT SoC 전공인증과정 참여 대학원의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중기 실무교육 또는 '06년 하계 설계특론의 일부 과정으로 개설되어, 각 과정별로 20~25명이 수강했으며, 기업의 맞춤형 설계교육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계교육을 동일한 과정으로 개설했다는 점에서 대학원 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업의 요구 내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수강생 평가는 상대 평가였으며, 삼성전기(주)직원들은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였고,

해당 성적은 사내에서 인사상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기(주)의 수강자는 교육기간중 IT SoC 아카데미로 출근하여 교육을 수강했으며, IT SoC 전공인증과정 석·박사 수강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를 나누는등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과정의 리더 역할을 하였다.

IT SoC 아카데미는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과정, 단기과정, 설계특 과정등 산업체실무교육과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2주 설계실습 과정의 등·하계설계특론이 개설되고 있으며, 연간 약 200개 이상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개설과정은 산업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IT SoC 전공인증과정 참여교수의 전문과 기획등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의 요구사항에 의한 과정의 수정,보완 및 신규 기획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개별기업의 도입기술, 주력제품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비취볼 때 산업체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SoC 설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메카가 된 IT SoC 아카데미에 이러한 수탁교육이 필요한 기업의 적극적인 문의를 기대하고 있다. ☺